

## 지식문화 향유의 기반, '도서관계' 현장 목소리 듣는다

- 1. 10. 유인촌 장관,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계 현장 간담회 개최
- 국가도서관위원회 구성 등 현안과 도서관 정책 방향 논의

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 유인촌 장관은 1월 10일(수) 오전,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도서관협회장,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장 등 도서관계 전문가들을 만나 도서관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.

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 구성 등 현안과 올해 도서관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. 아울러, 도서관 정책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을 공유한다.

유인촌 장관은 “도서관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지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문화 기반 시설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.”라며, “앞으로 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서관계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### ※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

담당 부서	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	책임자	과장	이현주 (044-203-2621)
		담당자	사무관	김혜련 (044-203-2618)

